



기획논문: 탈유교사회 정치문화의 비판적 사유



탈유교사회 중국의 정치문화와 유학부흥 현상

김명희



개항기 신문 매체를 통해 본 공론 개념의 의미장
: 「한성순보」·「한성주보」·「독립신문」을 중심으로
문경득



근대전환기 호남의 공론장과 유학적 관계망
: 호남학회와 「호남학보」를 중심으로
황태목

K C I

기획논문

탈유교사회 중국의 정치문화와 유학부흥 현상*

• 김명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3-0190-4063>)

투고일 : 2019.10.20. / 심사완료일 : 2019.11.04. / 게재확정일: 2019.11.11.

요약

이 글은 G2(Group of Two)가 된 중국, 탈유교사회인 현대 중국에서 지식인들은 왜 유학담론을 이야기하며, 유학은 왜 부흥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1세기의 탈유교화된 중국 현대사회에서, 중국지식인들은 왜 100년 전에 그들이 폐기처분했던 공자와 유교문화를 신자본주의시대인 21세기에 자신들의 새로운 '문명가치'로 내세우는가? 현대중국에서 유학은 왜 쇠락했는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에서 유학은 왜 다시 부흥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학부흥 현상'을 가능하게 한 중국사회의 매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현대사에서 유학의 쇠락과 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첫째, 신문화운동 시기에 전통은 무엇 때문에 거부되었는지, 둘째, 문화대혁명 시기에 공자는 왜 비판을 받았는지를 검토한다. 이 글은 특히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방법론으로 G2가 된 중국에서의 유학부흥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립, 대학과 당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제도권의 커리큘럼에 도입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탈유교화된 중국 현대 사회의 정치문화 상황과 21세기의 중국에서 유교문화의 부흥은 중국이 꿈꾸는 국가의 미래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유학의 쇠락, 유학부흥 현상, 유교의 통치 이념화, 공자학원, 제도권의 유교사상 교육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이 논문은 2019년 8월 22일 “탈유교사회 정치문화의 비판적 사유”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한국융합인문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서론

2019년 10월 1일 중국은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신중국(新中國)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閱兵式)을 진행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우리는 ‘두 개의 100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두 개의 100년 목표란 첫째,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강(小康)사회²⁾’를 완성해 전 인민이 중산층에 진입하는 것이다. 둘째,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富強)·민주·문명·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70발의 축포도 발사되었고,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둥펑(東風·DF)-41’이라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하였는데, 이 ‘둥펑-41’은 미국 전 지역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표적에 대해 타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건국 70주년 열병식은 중국의 국방 기술의 혁신과 자체 개발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 위협적인 무기들을 세상에 드러내어, 시진핑이 말한 “이 위대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것을 열병식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대륙에서는 건국 70주년 열병식이 진행되었고,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1980년대의 중국은 서방 세계에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동시에 서구의 문화와 지식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이른바 “문화열(文化熱)”현상이 일어났다. “제2의 5.4시기”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다양한 서구의 문화사조가 중국 대륙에 들어왔는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까지도 받아들였다. 1980년대의 사상이 역사적 사회주의와 문혁에 대한 지식인의 집단대응의 결과였다면, 1989년 6.4 천안문 사태는 중국인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였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덩샤오핑은 1992년 중국의 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하였다.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시장경제’

1)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은 중국 근대의 치욕을 극복하려는 중국의 꿈인데,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유하고 강한 중국, 국토회복과 민족통일, 중화문명의 회복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완성하는 구상이다.

2) 1979년 12월 6일 덩샤오핑(鄧小平)이 일본 수상 오히라(大平正芳)의 방문 시, 제시한 용어로 ‘온바오(溫飽 :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단계)’에서 부유한 단계인 중간 단계의 생활수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를 내세우면서, 중국 사회가 급선무로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를 사회의 민주화보다는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은 이 시기 동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의 발전 모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네 마리 작은 용’은 모두 유교문화권의 구성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민간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렬해지면서, 최고 지도층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전 시기 아시아 ‘네 마리 용’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정치 체제 하에서 이룩했던 경제발전 모델을 중국대륙에 도입하길 원했다.³⁾

그런데 1989년 6.4 천안문 사태로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중국공산당으로서는 경제성장이 천안문사태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중국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중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으면서부터이고, 공산당은 공자의 유학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에서 천안문사태의 해결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1994년 장쩌민(江澤民) 집권시기에는 정부차원에서 전통문화의 재평가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왔으며, 80년대 초까지의 교과서에서 “공자는 노예제도의 찬미자”라고 했던 공자에 대한 평가가 대폭 바뀌기 시작하였다.⁴⁾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지식인 사회는 물론이고 문화와 정치 등 제반 분야에서 대두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중국 전통, 특히 유교의 재발견과 부활이다.⁵⁾ 전통과 유교의 부활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지식인 사회의 담론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와 중국인의 일상생활 차원에서도 그렇다. 공자와 노장(老壯) 사상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하면 독경학교(讀經學校)가 생겨나는 등 중국인들의 일상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G2(Group of Two)가 된 중국, 탈유교사회인 현대 중국에서 지식인들은 왜 유학담론을 이야기하며, 유학은 왜 부흥했는가? 21세기 탈유교화된 중국 현대사

3) 丁學良(이희옥, 고영희 역). 2012. **중국모델의 혁신**. 성균관대출판부. 59-61쪽.

4) 조경란. 2012. “현대중국의 유학부흥과 ‘문명제국’의 재구축”. **시대와 철학**. 제23권 3호(통권 60권) 271-272쪽.

5) 이옥연. 2017.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지성-중국 재발견의 길**. 서강대학교출판부. 191-192쪽.

회에서, 중국지식인들은 왜 100년 전에 그들이 폐기처분했던 공자와 유교문화를 신자본주의 시대인 21세기에 자신들의 새로운 ‘문명가치’로 내세우는가?

본고는 현대중국에서 유학은 왜 쇠락했는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에서 유학은 왜 다시 부흥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학부흥 현상’을 가능하게 한 중국사회의 매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립, 대학과 당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의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비판적 사회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탈유교화된 중국 현대 사회의 정치문화는 어떠한지, 21세기 중국에서 공자와 유교문화의 재발견이 향후 중국이 꿈꾸는 국가의 미래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중국현대사에서 유학의 쇠락(衰落)

공자(孔子)와 유가사상(儒家思想)은 지난 2천여 년 동안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학은 중국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인들은 유가의 전통을 중국문화의 대표로 내세우고, 공자의 정체성을 문화의 상징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근현대사는 전체적으로 반(反)전통, 반(反)유학의 역사였다. 유가사상은 중국현대사에서 이미 한 세기에 달하는 쇠퇴와 몰락의 과정을 겪었다.

오늘날 많은 유학부흥론자들은 유가사상의 쇠락이유에 대해 서방문화의 충격, 급진적 반전통(反傳統)사상으로 인한 혼란, 현대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지식인의 과학과 민주에 대한 추구와 관방 사회주의 정치권력의 억압 등을 들어 설명한다.⁶⁾ 그런데 도덕과 정치질서를 통합하는 이상(理想), 중용의 도(道)를 유지하며, 지난 2천년 동안 국가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오던 유가사상은 중국현대사에서 왜 오히려 힘을 잃고 무너져버린 것일까? 21세기의 현대중국은 ‘유학부흥’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현대사에서 100년 동안 유학은 왜 쇠락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장(章)에서는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 시기 전통의 거부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6) 劉擎, “儒家復興與現代政治”, <http://www.aisixiang.com/data/56401.html> (검색일: 2019. 07. 10)

시기의 공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중국현대사의 100년 기간 동안에 유학이 쇠락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문화운동과 전통의 거부

중국의 근대는 1840년 아편전쟁부터 시작된다.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국가의 위기와 사대부들의 위기의식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된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태평천국운동(1851년~1864년)을 비롯해 위로부터의 개혁인 양무운동(1861년~1894년), 변법자강운동(189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려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쑹귀관(曾國藩)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내건 가장 강력한 슬로건은 바로 유교·성인(聖人)의 교설(敎說), 전통 윤리 방위의 필요성이었다⁷⁾. Kang유웨이(康有爲)의 변법자강운동도 유교해석, 즉 공자가 개혁자였다는 Kang유웨이 본인의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청말의 극단적 보수파들은 공자 제사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는데, 1906년 서태후(西太后)는 공자에게 최고의 제전을 바쳐야 한다고 포고하기도 했다.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 이후, 중국에서 유학은 제도적 기반이 상실되었다. 1905년 새로운 형법이 제정된 이후 유가의 친친(親親)원칙은 법률에서 삭제되었고⁸⁾, 과거제가 폐지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식학당이 세워졌다. 당시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현 北京大學校)은 Kang유웨이, 장즈통(張之洞) 같은 근현대 사상가들과 관련이 있는데, 경학과(經學科)가 있기는 했지만, 머지않아 폐지되었다⁹⁾. 당시 차이위엔페이(蔡元培)가 베이징 대학교학장(1916년)이었는데, 그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객관적 지식을 가르쳐야지 가치를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먼저 베이징대학교의 경학과를 없앤 뒤에, 유가 경

7) 권기영, 2016, **마르크스와 공자의 화해**, 푸른숲, 44쪽.

8) 조경란, 2017b, “현대중국의 ‘유학부흥’현상—대표적 대륙신유학자 간춘송에게 듣는다”, **시대와 철학**, 제28권 2호(통권79호), 129쪽

9) 1912년 차이위엔페이(蔡元培)는 교육부 총장에 임명되었는데 “소학교에서의 경전 읽기(小學讀經)를 폐지”하였고, <대학령> 22조에서 “대학은 문과·이과·법과·상과·의과·농학과·공과인 7개 과로 나누었으며” 경학(經學)학과가 폐지되었다.

전을 각 학과로 분리시켜 놓았다. 예를 들어 『춘추(春秋)』는 역사학과로, 『시경(詩經)』은 중문과로, 『주역(周易)』과 『논어(論語)』는 철학과로 편성되었다.¹⁰⁾ 이러한 분류방법은 중국인이 더 이상 이들 책에 신성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가치관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음을 뜻한다. 다른 책들과 다름없이 경전도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이었다. 2천여 년 동안 중국의 교육체계에서 중심 지위를 차지하였던 유학은 사라져버렸다. 위잉스(余英時)는 유학은 “떠도는 혼(遊魂)”이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서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했다. 서구의 선진기술을 학습하고자 했고, 근대적 제도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서문화에 중국의 기본적 태도는 여전히 전통을 근본으로 한다는 이른바 ‘중체서용(中體西用)’¹¹⁾이었다. 심지어 신해혁명(1911년)을 통해 봉건왕조가 무너진 후에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강화하기까지 하였다. 1912년 상하이에서는 민족의 정통성을 중시한 사대부 계층이 공교회(孔教會·공자교)¹²⁾를 설립하였고, 1913년에는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가 중화민국(中華民國) 헌법초안을 기초하면서 ‘유교를 국교로 제정하려는 조항을 제안’했으며, 결국 절충안으로 낙찰된 헌법 제19조는 “국민교육상 공자의 도를 수신의 근본으로 한다”¹³⁾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위안스카이(袁世凱)의 황제복벽운동(1915년)¹⁴⁾으로 인해 정점으로 치닫는다. 특히 캉유웨이는 “유교가 2천 년간 중국을 지배 해왔으므로 이를 폐기하면 중국이 분열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가에는 정신적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공자의 가르침이 바로 중국의 기초이므로 ‘유교’ 없이는 중국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의 황제복벽운동은 공자와 유학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 것이었으니, 내 외부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10) 주 8)과 같음, 130쪽.

11) 중체서용은 중국 본래의 유학을 신념으로 하되 부국강병을 위해 서양문명을 받아들여자는 주장이다.

12) 1898년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했던 캉유웨이가 신해혁명 직후에 공자사상을 종교적으로 개조해 현대 사회에 맞는 국교(國教)를 만들고자 조직했다.

13) 주 7)과 같음, 45쪽.

14) 신해혁명 이후 쑨원(孫文)과의 약정에 따라 대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15년12월에 중화민국(中華民國) 연호를 폐지하고 중화제국(中華帝國)이라 바꾼 뒤 스스로를 황제(홍헌제:洪憲帝)라 칭했다. 그러나 내 외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1916년 3월 군주제를 취소했다.

중체서용에 기반한 중국의 근대화 노력은 실패하였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동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이처럼 뒤떨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반대로 서구열강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5.4운동 지식인들—천두슈(陳獨秀)·후스(胡適)·루쉰(魯迅)—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서구의 발전 동력은 ‘민주(民主)’와 ‘과학(科學)’에 있으며, 중국이 낙후된 근본 원인은 유교를 핵심으로 하는 ‘전통(傳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문화는 소위 ‘민주’와 ‘과학’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민주’와 ‘과학’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1915년, 중국의 신문화운동¹⁵⁾ 지식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천두슈는 「공교 문제를 다시 논함(再論孔教問題)」이라는 글에서 ‘유교를 국교로 정하여 헌법에 넣지’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령 사회적 관습으로 공교(孔敎·공자교)나 유교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걸 또 정치에까지 끌어들이고 헌법 조문에까지 규정해놓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공교를 국교로 정하고 헌법으로 정했다가 만약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면 불교, 예수교 같은 다른 종교 신자들도 자기 종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헌법은 순전히 법의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어야지 교육의 문제와 연관 지어서도 안된다”, “단지 공교를 국교로 삼아 장래의 헌법에 정해 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전국의 공자 사당들도 부수고 그 제사도 파해야 한다”¹⁶⁾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이 장차 인류가 깨달음에 이르고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도(正道)이며,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기에, 과학을 당연히 공교나 공자의 도나, 다른 종교나 철학보다 더 크게 제창하고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헌법에 정해서 사람들에게 제창하고 중시하도록 요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천두슈는 유교를 사회적 관습이며, 교육의 문제이지, 공교를 국교로 정하고, 헌법에 넣지는 것에 반대했으며, “공자학설을 타도하자(打倒孔子店)”라고 주장했다.

15) 중국의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은 1917-1921년에 걸쳐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제도와 문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계몽운동이다. 1915년 천두슈는 5.4운동의 사상적 진지였던 잡지 『신청년(新靑年)』을 창간하여, 문학혁명, 유교비판, 문자개혁(백화문(白話文)사용)을 주장하였다.

16) 천두슈(陳獨秀)지음, 심혜영 옮김. 2017. “공교 문제를 다시 논함(再論孔教問題)”. 천두슈 사상선집(陳獨秀思想選集). 산지니. 87-89쪽.

5.4운동이란 이른바 1919년 5월 4일, 베이징의 학생들이 당시 중국 정부의 굴욕적인 대 일본 정책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사건을 의미하지만, 훗날 중국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뜻을 지닌, 대략 1917년부터 1921년에 걸쳐 진행된 신문화운동을 가리킨다. 당시 위안스카이 정부는 일본의 최후통첩에 굴복해,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권리를 일본에게 넘기라는 21개조 조항을 수락한다. 일본에게 산둥성의 권익을 빼앗겼다는 전보가 1919년 4월 30일, 베이징에 퍼졌고 이는 5.4운동이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4시기, 중국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중국 낙후의 원인을 ‘전통’에서 찾았고, 이때 ‘전통’의 핵심은 유학과 유교문화였다. 또한 이들은 ‘중체서용’의 논리도 비판하였다. 신문화운동의 핵심 리더였던 천두슈와 후스는 중국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신문화운동 시기 적지 않은 학자들은 “유학이 죽지 않으면, 중국이 부흥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천두슈와 리다자오(李大釗)는 모두 “여전히 공자를 존송한다면 새로운 국가의 헌법체계를 수립할 수 없을 것”¹⁷⁾이라고 했다.

루쉰은 단편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나는 역사를 훑어보았는데, 거기엔 연대가 없고 페이지마다 ‘인(仁)·의(義)·도덕(道德)’이란 글자가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아무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밤중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마침내 책은 ‘식인(吃人)’이란 글자가 글자 틈 사이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다.....4천 년간 무의식적으로 식인을 하고서 이제야 깨달아 참된 인간을 대하려니 몹시 창피하다.”¹⁸⁾

루쉰은 중국의 전통과 인의·예교(仁義·禮敎)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인 ‘식인’사회라고 묘사하면서, ‘아이들을 구하라!’고 외친다. 5·4운동 지식인들의 사상적 진지가 바로 잡지 『신청년(新靑年)』이었다. 5.4신문화운동의 진지였던 『신청년』은 유학을 맹렬히 비판하였고, “공자학설을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유학은 2천여 년 동안 중국 사상문화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정통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17) 조경란. 2017b. “현대중국의 ‘유학부흥’현상—대표적 대륙신유학자 간춘송에게 듣는다”. **시대와 철학** 제28권 2호(통권79호). 131쪽.

18) 魯迅. 2005. **魯迅全集**. 第1卷. 人民文學出版社, 447쪽.

중국과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양의 방법을 취해 서양에 응대한다는 전략에서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셈이었다. ‘문명 중국’이라는 전통의 비판과 국민국가라는 근대의 지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20세기 중국의 지식인은 전통은 부정의 대상으로¹⁹⁾, 근대는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그리고 혁명은 근대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신문화운동 시기의 전통과 유교는 근대화의 걸림돌로 여겨져서 거부되었다.

2. 문화대혁명 시기의 공자에 대한 비판

1917년 중국의 신문화운동시기부터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 중국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근현대사는 전체적으로 반전통·반유학의 역사였는데, 5·4운동의 반전통주의적 경향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에서도 지속된다. 물론 사회주의 중국으로 이어진 반전통주의는 5·4운동 시기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중국 공산당의 당면과제는 새로운 국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중국인은 발전해야 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야 하되, 유가(儒家)와는 근본적으로 단절한다는 것이 중국문화 발전의 주요기조였다.²⁰⁾ 또 하나의 흐름은 유학은 중국인의 도덕수양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며, 중국의 제도나 발전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²¹⁾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한 후에도 5·4정신은 공산당의 두 가지 핵심 화법 속에 남아있었다. 하나는 반제(反帝)로 주로 정치혁명을 담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성취가 바로 자주독립의 현대국가를 건설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반봉건(反封建)으로, 이것은 사회혁명의 내용이다. 1949년 이후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유가는 “네 가지 옛 것(四舊: 구(舊)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당시 사회주의 개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주의 개조는 가정의 생산재 점유를 타파하고 집체

19) 조경란. 2018b. “20세기 동아시아의 역사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학과 동아시아**. 도서출판b. 108쪽.

20) 조경란. 2017b. “현대중국의 ‘유학부흥’현상—대표적 대륙신유학자 간준송에게 듣는다”, **시대와 철학**. 제28권 2호(통권79호). 136쪽.

21) 上同, 130쪽

화(集體化)를 추진했기 때문이었다²²⁾.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할 것이 바로 가정 관념이었다. 유기는 가정 윤리를 가장 중시한다는 면에서 공산당의 사회혁명과 대치되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유기는 또 다시 정치의 대립물이 되어버렸다.

“문화대혁명”의 중요 내용은 “공자비판(批孔)”이었고, 전통에 대한 비판은 비림비공(批林批孔)운동²³⁾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혁시기에 왜 린바오(林彪)와 공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는가? 린바오는 공산당 제2인자로 떠오르며, 대혁명을 주창하고, ‘네 가지 옛 것’, 즉 봉건적인 전통문화 타파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왜 그가 공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비판받았는가? 비림비공 운동은 린바오 사건으로 인해 마오쩌둥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린바오를 공자와 연결해 비판한 운동이다. 린바오 사건은 중국공산당 내에서 2인자로 주목받던 린바오가 돌연 최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다가 적발되자 소련으로 도주하다가 1971년 9월 13일 몽골의 운델항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후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마오쩌둥에 대한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당헌장이 인정한 후계자가 뜻밖에도 최고 권력자를 배신하고 피신하려 했으며 새로 승진한 6명의 정치국 위원이 권력탈취 음모활동에 가담한 사건이었다.²⁴⁾

이 충격적인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문화대혁명은 진정 필요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비림정풍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었다. 1971년 12월부터 중공중앙은 ‘린바오집단의 반혁명정변 분쇄투쟁에 관해’라는 자료를 비준하고 전국적으로 대중을 동원해 린바오 집단의 죄행을 적발, 비판했다. 마오쩌둥은 린바오가 지주와 자본가를 대표해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 했다고 보았다.²⁵⁾

린바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1973년 8월 7일, 〈인민일보〉에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는 중산대학 역사학과 양릉귀(楊榮國)라는 학자의 논문인 「공자—완고하게 노예제 사상을

22) 집체화는 1958년 대약진 운동과 함께 인민공사(人民公社)가 조직되고, 공사에는 공동식당, 유치원, 양로원, 병원 등의 복지시설이 설치되었다. 20-30호로 이루어지는 생산대(生產隊)가 조직되면서, 각 가정에서 지어 먹던 밥도 마을의 공동식당에서 먹고,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일 등, 기존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인민공사에서 맡아 하게 되면서, 가정관념이 약화되었다. 上同, 133쪽

23) 린바오(林彪)를 비판(批林)하고, 공자의 사상을 공격하고 비판(批孔)하였던 운동으로, 즉, 린바오와 공자를 비판(批林批孔)하는 운동이었다.

24) 조경란. 2014, “중국 지식의 ‘윤리적’ 재구성의 가능성”. 중국근현대사연구. 165쪽.

25) 上同.

옹호한 사상가」가 실리면서, 공자와 유교를 공격하는 논문이 대중적인 신문과 잡지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었고, 이렇게 비림비공 운동은 시작되었다. 마오는 름바오의 사상적 기원이 유가에서 나왔고 름바오는 국민당과 같이 “유가를 존경하고 법가를 반대했다”는 것이었다.²⁶⁾

그러나 사회주의 정권에서 거의 모든 정치적 비판은 죽은 권력보다는 살아있는 권력 또는 반대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림비공 운동의 현실적 타격대상은 저우언라이(周恩來)였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²⁷⁾ 왜냐하면 좌경적 방침으로 정치활동을 하려는 장칭(江青)집단에게 저우언라이는 중요한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당시 저우언라이는 름바오사건 이후, 문혁에 대해 회의를 품는 정서가 광범해진 상황에서 인민군중으로부터 좌경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 자체가 름바오 비판과 한 데 묶여 정치적 인물을 비판하는데 활용된 것은 유학 자체의 비판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이 운동을 통해 공자와 유학이라는 상징 자체가 중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력이 남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름바오 사건(1971년)이 있고나서 몇 년이 지나 왜 비림비공운동(1973년)을 전개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정치인이 타격대상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비림비공의 목적은 이처럼 름바오 비판도 공자 비판도 아닌 살아있는 이를 겨냥한 것이었다.²⁸⁾

이처럼 사회주의 중국에서, 공자와 유가는 ‘타파해야 할 네 가지 옛 것(四舊打破)’으로 간주되어, 점차 중국인의 정치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사라져갔으며, 심지어는 권력에 의해 정치적 인물을 비판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III. G2가 된 중국에서 유학의 부흥

2000년대에 들어와 후진타오(胡錦濤:2003~2012) 시대와 시진핑(習近平:2013~현재) 시대에 중국 지식인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은 중국이 G2(Group of Two)

26) 진춘밍·시위엔(이정남·하도형·주장환 옮김). 2000. **문화대혁명사**. 나무와 숲. 327-328쪽.

27) 첸리첸(연광석 옮김). 2012.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하)**. 한울. 217쪽. 진춘밍·시위엔. 333쪽.

28) 주)24와 같음. 169쪽.

의 대국으로 부상한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가 2008년 이후 금융 위기의 수렁에 빠진 데 비해,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2008)과 상하이엑스포(2010) 등의 초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원추안(汶川) 대지진(2008)의 참사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가 하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 정부의 능력과 체제의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아편전쟁(1840) 이후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이 겪었던 민족적 굴욕감은 현대 중국인의 의식에 뿌리 깊은 상처로 자리한 민족적 트라우마(national trauma)였다. 그런데 후진타오 시대는 그러한 민족적 트라우마인 굴욕감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해가는 전환점이 마련된 시기이다.²⁹⁾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2000년대 첫 10년 동안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의 역사 경험과 중국의 제도와 가치, 유교 사상, 중국 근대성 등 중국적인 것을 재발견한다. ‘중국’ 재발견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 중국의 굴기(屈起)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 되었다. 굴기한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세계대국으로서 중국은 어떤 문명적 가치를 세계에 제시할 것인가가 중국 지식인들의 지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³⁰⁾. 중국 가치와 중국 사상, 중국 모델(中國模式), 중국성(中國性, Chineseness) 등이 지식인들의 담론에 화두로 등장하는 가운데 서구 근대의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중국적인 것을 어떻게 보편의 지평으로 끌어올릴 것인가가 중국 사상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요컨대 21세기 초의 중국 지식인 사회는 중국 전통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서구의 이념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³¹⁾. 이런 가운데 반서구 근대와 전통주의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 전통, 특히 유교의 재발견과 부흥현상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금 중국에서 유학이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의 현대적 부흥현상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본 장에서는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립, 대학과 공산당 간부학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당대 중국에서 유학의 부흥현상이 가능하게 된 매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29) 이옥연, 2017.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지성-중국 재발견의 길*. 서강대학교출판부, 163쪽. 재인용.

30) 同上.

31) 許紀霖, 2011. *啓蒙如何起死回生:現代中國知識分子的思想困境*. 北京:北京大學出版社, 366쪽.

1.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중국내에서 유교문화 붐 현상이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 와서이다. 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경운동³²⁾, 청년 프론티어나 공익써클의 형태를 띠고 출현한 전통문화를 유포하는 민간단체들, 중앙 TV방송국의 방송 송출³³⁾, 북경대철학과의 기업가를 위한 국학반 개설, 인민대학의 국학원 설립 등은 매우 눈에 띄는 현상들이다. 이 외에도 순수 민간에서 예의(禮儀)나 풍속의 재건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전통 부흥 현상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으로 표출된 것이 2006년 《광명일보》가 ‘국학관’을 창간한 것이다. 이 국학관은 전지면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전통문화를 광고하기 시작했다.³⁴⁾

후진타오는 유교적 화(和)의 개념을 들어,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공산당 정권의 공식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중국 전통 가치와 유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흐름을 확산시켰는데, 전통 가치와 유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이러한 정책은 문화강국, 문화대국 전략과 더불어 추진되었다. 2001년 10월에는 장다이넨(張岱年), 지센린(季羨林) 등 86명의 학자들이 〈중화문화부흥선언(中華文化復興宣言)〉을 발표해 21세기는 중화문화부흥의 세기이며 중화문화를 부흥하는 것은 동서문화의 융화이자 신문화의 창건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9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2004 문화 고위층 포럼(文化高峯論壇)’ 폐막식에서는 〈갑신문화선언(甲申文化宣言)〉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 서명한 총 70명의 면면을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원로들과 지식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갑신문화선언〉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중국이 외국의 문화요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화문화의 인문 정신이 인류 미래의 비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³⁵⁾

32) 소년 독경운동에 대해서는 金苑(2016, “중화송(中華誦)을 통해 본 중국의 어린이 고전교육”, **중국어문학논집**(101))의 논문을 참조.

33) 중국 고전을 중심으로 짜여진 중국 중앙방송의 백가강단(百家講壇)이 국가와 자본의 비호아래 공전의 히트를 쳤다.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된 사람은 『論語心得』의 저자 위단(于丹)이다.

34) 조경란, 2018a,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제49집, 99쪽, 재인용.

35) 권기영, 2016, **마르크스와 공자의 화해**, 푸른숲, 92쪽

시진핑(習近平:2013~현재)의 ‘중국의 꿈(中國夢)’은 ‘문명국가’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여전히 진행형인 문화대국, 문화강국 정책에서 전통 가치와 유교 가치의 재발견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문화유산의 날’을 지정하는³⁶⁾ 등 중국 전통 문화유산이나 문화양식을 복원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통 가치, 특히 유교사상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이를 국가의 핵심가치로 격상시킨 점이다³⁷⁾. 시진핑 시대에는 사회주의 가치와 전통가치를 융합하여 부강, 민주, 애국, 성실, 우애, 직업의식 등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설정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전통가치와 유교를 재발견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지식인 사회이다. 지식인 사회에서 문화 보수주의는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중국 전통 가치로서 유교를 강조하는 가운데 유교 가치의 재발견과 부활을 주장한다. 둘째, 유교를 문화 가치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차원에서 재발견하는 정치 유교가 대두하였다. 셋째, 중국 전통 가치의 상징으로서 유교를 서구근대에 대한 대안 차원과 인류 보편 문명의 자산으로 격상시키려 한다.³⁸⁾

유학담론을 이야기하는 지식인들 중에 대륙 신유학의 대표적 인물들로는 장칭(蔣慶), 천밍(陳明), 다니엘 A. 벨을 들 수 있다. 첫째, 장칭은 ‘정치유학’을 주장하며, 유교를 헌법으로 삼는 유교국가론을 주장한다. 장칭은 앞으로 중국은 정교합일의 유교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장칭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체제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왕도를 제시하면서, 경전읽기대회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여 크게 히트했다³⁹⁾. 둘째, 천밍은 ‘공민 종교’를 주장하는데, 유교를 그냥 종교로서의 유교가 아니라 시민종교로서의 유교로 보자는 것이다. 천밍은 국가유교나 학문적으로서의 유학의 측면보다는 민간유교의 측면을 중시한다. 천밍은 공민종교로서의 유교가 특히 공공영역인 정치제도 및 그 운용과

36) 중국 국무원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였다. 2017년부터는 ‘문화유산의 날’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로 개정하였는데,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도 지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37) 「胡錦濤在第18次中國共產黨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html> (검색일: 2019.06.28.) 후진타오는 2012년 11월 8일에 이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부터 시진핑은 이 보고서의 지침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

38) 이옥연, 2017.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지성-중국 재발견의 길**. 서강대학교출판부. 195쪽.

39) 조경란. 2018a.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제49집. 105쪽.

평가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천밍도 역시 국가 합법성에 대한 고민이 매우 관건적이다. 셋째, 다니엘 A. 벨의 ‘현능주의(賢能主意:메토크라시)’이다. 벨은 중국공산당의 유능함의 근원을 현능주의 정치에서 찾는다. 벨은 중국의 현능주의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중국경제를 성공시킨 열쇠⁴⁰⁾이고, 벨은 이 성공이야말로 중국정치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확신한다⁴¹⁾.

중국 전통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화보수주의의 흐름이 국가 정책과 전체 지식인 사회, 그리고 민간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통 가운데 유교는 빠른 속도로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대표적 정책변화의 지표는 2017년 1월 중공중앙행정실과 국무원행정실이 발표한 <중화 우수전통문화 전승발전 실시계획에 관한 의견(關於實施中華優秀傳承發展工程的意見)>(이하 <의견>)에서 확인된다. <의견>은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가치와 전통가치의 융합, 즉 마르크스주의와 유교의 결합이 현재 탈유교사회 중국의 정치문화⁴²⁾인 셈이다. 최근 공산당 간부학교(黨校) 내부에서 ‘외마내유(外馬內儒)’라는 말이 공공연히 운위된다고 한다. 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유가의 전통사상으로 인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미이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통합과 통치의 수단으로 유교문화를 국가이데올로기의 일부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중국의 유학부흥은 ‘문명중국’의 재구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유학은 문명제국의 재구축 기획에 이데올로기적 근간이 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유학부흥 현상은 국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 지식인이 자발적, 半자발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조경란은 이러한 유학을 ‘권력·지식 복합체로서의 유학’으로 보았고, 이에 대항하여 ‘비판담론으로서의 유학’ 즉, 사(士)계층의 역할에 주목하기를 주장하고 있다⁴³⁾.

40) 다니엘 벨, 2017. **차이나모델**. 서해문집. 373쪽.

41) 여기에서는 대륙 신유학의 대표적 인물들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경란, 2018a,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 분석—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제49집, 110쪽. 참조.

42) 정치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집단의 정치적 기분, 태도, 평가, 의무감, 약속 등을 포함하는 정치체제의 심리적 측면 및 내재화된 정치체제”를 말한다.

43) 조경란, 2012, “현대중국의 유학부흥과 ‘문명제국’의 재구축”, **시대와 철학**, 제23권 3호(통권 60호), 259쪽.

결국 현재 중국의 국가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들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효용이 다한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이 국가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재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중국의 정치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립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20년이 지난 후인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2008년에는 베이징(北京)올림픽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2010년 상하이 무역박람회(EX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경제구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국가주석이 된 후진타오는 집권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후진타오는 200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식장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인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한 민주적 문명을 가진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두 개의 100년’ 정책을 언급하였다. 후진타오의 경제성과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중국을 G2(Group of Two)의 국가 반열에 올려놓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잠재력이 강한 국가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체제는 지속적인 양적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병행함으로써 내실화된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입지를 강화하였다. 결국 중국은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면서 중국 역사상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였다.⁴⁴⁾

2011년 10월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7기 6중 전회)에서 문화개혁을 주요 의제로 하여, “중공중앙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기 위한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하 <결정>)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결정>을 통해 경제 부흥에 이어 문화안보를 지키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44) 박광득, 2013. “후진타오와 시진핑 체제의 비교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1(1), 167쪽.

고유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시키고, 인민의 정체성과 중국문화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⁴⁵⁾

세계화 시대에 중국정부는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통적 문화요소를 통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문화의 중요성을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미래중국의 국가발전에 중요한 축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문화안보, 소프트파워, 문화대국, 중국 국가 이미지 구축, 문화외교, 공자 및 유교부흥 등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자학원(孔子學院/Confucius Institute)을 설치하였다. 특히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통문화의 해외진출(走出去)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자학원’이었다.

공자학원은 중국정부가 외국에 설립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중국이 ‘공자’를 모티브로 하여, 전 세계에 소프트파워를 배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기관이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형성하고,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자학원의 설립 초기에는 공자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에는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낮추고 있다⁴⁶⁾. 전 세계의 공자학원의 설립 이면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 각국이 창조한 찬란한 문화는 인류공동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하며 공자학원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것’이라고 역설한 점⁴⁷⁾에서도 공자학원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2004년 11월 서울에 첫 번째 공자학원을 설립한 이래, 2019년 10월 현재, 전 세계 155개 국가와 지역에 548개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⁴⁸⁾ 현재 중국정부는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어와 유가사상을 핵심으로 한 중국문화를 외국에 전파하여 국제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45) 임규섭, 2013. “포스트사회주의 시대,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63. 73쪽.

46) 김일수·최형룡. 2014.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73), 32쪽.

47) 同上. 33쪽.

48) 중국 교육부 공자학원 본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hanban.edu.cn/>

그러나 최근에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정부의 선전도구로 활용되어 학문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과의 협의를 해지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 시카고대 인류학과 교수인 마셜 사린스는 지난 9월 25일,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하여,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그 대가로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대만과 티베트 독립문제, 톈안먼 사태 등을 주제로 강의나 학술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하여, 공자학원이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정치선전 도구에 불과하다”⁴⁹⁾고 비판하였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체계는 더 이상 정통성을 지닐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유교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급부상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유교의 눈으로 다시보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후진타오 정부의 ‘조화사회론’은 유학을 부흥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조화사회 건설은 유교의 대동사회 건설을 위한 이상과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현실적 정치사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할 중심 사상으로 유교를 선택하여 전통 유교사상과 마르크스 사상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⁵⁰⁾

주지하듯 중국정부는 문화대혁명 기간 소위 사구타파(四舊打破)를 외치며 전통과 도덕을 철저히 비판한 동시에 비림(批林), 비공(批孔)운동을 펼치며 공자를 격렬하게 공격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공자와 유교사상은 농민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혁명을 반대하며 노예제를 옹호하는 반동사상으로 간주되었고,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렇듯 비판의 대상이었던 공자를 이제 와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막강한 정치력, 군사력과 더불어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두되는 소위 ‘중국 위협론’을 잠재우고 문화수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⁵¹⁾. 바로 ‘공자’라는 문화 아이콘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가 패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자를 통해 평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49) <http://www.xinsega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86> (검색일: 2019.10.5.)

50) 김진열, 2015. “중국지도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유교 부활의 정치적 함의 고찰”. **중국과 중국학**, 24, 143쪽.

51) 이종철, 2011.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에 대한 一考察”. **국제지역학논총**, 제4권 2호, 137쪽.

3. 대학과 당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중국 현대사에서 5·4신문화운동 시기에 사라졌던 경학과(經學科)는 100년 동안의 자기 부정의 시간을 겪은 뒤에, ‘국학(國學)’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중국의 대학에 다시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 전통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화보수주의의 흐름이 국가 정책과 전체 지식인 사회, 그리고 민간사회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 가운데 유교는 빠른 속도로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년 1월 25일에 발표된 <중화 우수전통문화 전승발전 실시계획>에 관한 의견(關於實施中華優秀傳承發展工程的意見)⁵²⁾(이하<의견>의) 특징 중 하나는 제9조 ‘국민교육에 관한’ 항목이다. <의견>은 “대학교육에서 중화 우수 전통문화 내용을 늘리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필수과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변화된 정책의 핵심이다. 1917년 신문화운동 시기로부터 정확히 100년 동안 자기부정 당했던 유교정신이 마침내 대학의 커리큘럼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2004년에 시작된 독경운동(讀經運動)을 시작으로, 2000년대의 중국은 유가사상이 핵심이 되는 ‘국학(國學)’이 전개되고 있었다. 인민대학은 2005년에 ‘국학원(國學院)’을 설립하였고, 정책 브레인의 산실인 학술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이 ‘유교연구소(儒敎研究中心)’를 설립하였다. 2006년 6월에는 국제유학연합회와 베이징정법대학(北京政法大學)이 공동으로 유학전공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유학대학원 석사반을 설립하였다.⁵³⁾ 2007년 1월에 18개 대학에 공자관련연구소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들은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부흥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푸단대학교(復旦大學) 철학과 교수인 장루룬(張汝倫)은 <논어(論語)>가 최근 들어 일부 대학교의 교과과정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철학과와 중문과에서는 <논어>수업을 개설했으며, 정규수업으로 지정했다. 거의 모든 학기마다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이 앞 다투어 수강신청을 한다. 한 학기에 두 개의 반을 개설한 적이 있는데, 약 오백 명이나 <논어>수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았다. 이 수업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논어>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논어> 자체의 가치가 증명된 것도 아니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 <논어>는 불후의

52)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07.20)

53) 김일수·최형룡. 2014.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73), 30쪽.

정전으로서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매력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⁵⁴⁾

중국의 대학교 이외에도 2017년 12월 중앙당교(中央黨校)⁵⁵⁾에서 〈유학과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이 의제는 사회주의와 중국 전통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인데,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단지 맑스-레닌주의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유학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당교(黨校)에서도 중국 간부관리학교에서도 중국의 전통문화가 학교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미래의 중국을 이끌어갈 공산당 간부를 교육시킬 때까지도 전통문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⁵⁶⁾는 것이다.

중국의 주요 대학과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는 전통문화가 중국 미래 정치에 일정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北京)대학 철학과 교수이고, 베이징대학 유학연구원 부원장인 간춘송(干春松)은 중국 유학부흥의 큰 목표는 중국 굴기 이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중국의 이미지를 구축해갈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대표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전체(자본가 및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를 대표하기 위한 자산으로 유학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⁵⁷⁾이라고 보았다.

IV. 결 론

이 글은 21세기에 G2가 된 중국, 탈유교사회인 현대 중국에서 지식인들은 왜 유학담론을 이야기하며, 유학은 왜 부흥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현대중국에서 유학은 왜 쇠락했는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에서 유학은 왜 다시 부흥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학부흥 현상’을 가능하게 한 중국사회의 매커니즘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았다. 중국현대사에서 유학의 쇠락 원인은 첫째, 신문화운동 시기에 전통(유교)은 근대화의 걸림돌로 여겨져서 거부되었으며, 둘째, 문화대혁명 시기에 공자(유가)는 타파해

54) 張汝倫, 2008. “『論語』對於現代教育的意義”.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251쪽.

55) 중앙당교(中央黨校):중국 공산당 당원과 당원간부를 훈련·교육시키는 학교. 정치사상 관념과 과학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당성(黨性)을 강화시킨다.

56) 조경란, 2017. “현대중국의 ‘유학부흥’현상—대표적 대륙신유학자 간춘송에게 듣는다”. 시대와 철학. 제28권 2호(통권79호), 157쪽.

57) 上同. 144-145.

야 할 사구(四舊: 네 가지 옛 것: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로 간주되어, 사회주의 혁명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으며, 공자는 심지어 살아있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글은 G2가 된 중국에서 유교부흥현상을 가능하게 했던 중국사회의 매커니즘을 국가의 정책과 지식인의 유학담론, 경제발전과 공자학원의 설치, 대학과 당교(黨校)에서의 전통문화의 교육이 제도권의 커리큘럼에 제도입된 것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의 유학부흥 현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40년이 지난 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상부구조에 있는 마르크스주의 체제가 효용이 다했다는 점이 딜레마이다. 2000년대 이후의 유학부흥은 현상은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 합법성, 즉 정체성 찾기의 과정에서 국가가 유교를 전 인민을 통합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선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옷을 입고, 안으로는 유교를 받아들이는 외마내유(外馬內儒)의 형식이지만, 앞으로는 유교가 전체 인민을 통합할 대안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의 문화상징인 유학을 중시하는 것이 중화주의와 민족주의에 심하게 경도될 때, 자칫 패권주의에 빠지게 될 우려도 늘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陳來, 甘陽 主編. 2008.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甘陽. 2012. **文明・國家・大學**. 北京:三聯書店.
 許紀霖. 2011. **啓蒙如何起死回生:現代中國知識分子的思想困境**. 北京:北京大學出版社.
 何信全 著. 2001. **儒學與現代民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杜維明. 2008. “儒家傳統現代轉化的資源”,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湯一介. 2008. “關於復興儒學的思考”,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成中英. 2014. “從儒學的現代性發展看知識與價值的良性互動”, 放談錄.
 成中英. 2013. “儒學復興與現代國家建設”, 中共寧波市委黨學校報.

- 童世駿. 2008. “傳統文化與大衆消費時代的精神文化需求”,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 王富仁. 2008. ““新國學”與“新儒家””,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 蔣慶. 2008. “政治的孔子與孔子的政治”,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 張汝倫. 2008. “『論語』對於現代教育的意義”, **孔子與當代中國**, 三聯書店.

〈논문 및 단행본〉

- 권기영. 2016. **마르크스와 공자의 화해**. 푸른숲, [GWON Gi-yeong. 2016. *Mareukeuseu wa Gongjauui hwahae*, pureunsup]
- 김도희 편. 2005. 『새로운 중국의 모색 II』, 폴리에이아. [KIM Do-Hee. 2005. *Saeroun Junggugui Mosaek II*, politeia.]
- 김일수·최형룡. 2014.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73), 32쪽. [KIM Il-su·CHOE Hyeong-nyong. 2014. “Junggugui sopeuteupawo jeongchaekgwa gongjahagwonui yeokhal”. *Hangukdongbuganongchong*, (73), 32.]
- 미조구치 유조 지음, 조영렬 옮김. 2012.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 글항아리. [Mijoguchi Yujo, JO Yeongn-Yeol. 2012. *Jungguk Jegugeul umjigin ne gaji him*, geulhangari.]
- 박광득. 2013. “후진타오와 시진핑 체제의 비교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1(1). 167쪽. [BAKG Gwang-deuk, 2013. “Hujintaowa sijinping chejeui bigyowa hyanghu gwajee daehan yeongu”. *Daehanjeongchihakoebo*, 21(1), 167.]
- 송인재. 2019. “문명, 천하, 유학의 재해석과 중국의 길”, **전주대학교 HK+연구단 제16차 콜로키움 발표문**. [SONG In-jae, 2019. Reinterpretation of civilization, world, studying abroad and China's way. *Jeonju University HK+Research Group 16th Colloquium Presentation*.]
- 쉬저린 지음, 송인재 옮김. 2013.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 글항아리. [XU, Ji lin, SONG In-jae, 2013. *Wae dasi gyemongi piryohanga*, geulhangari.]
- 이옥연. 2017.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지성중국 재발견의 길**. 서강대학교출판 부. [LEE Ug-yeon, 2013. *Poseuteu sahoejuui sidae junggukjiseong-jungguk jaebalgyeonui gil*, seogangdaehakgyochulpanbu.]
- 이종철. 2011.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에 대한 一考察”. **국제지역학논총**. 제4권 2호. 137쪽. [LEE Jong-cheol, 2011. “Junggugui sopeuteupawo Ganghwa jeollyage daehan ilgochal”. *Gukjejiyeokangnonchong*, 4(2), 137]
- 임규섭. 2013. “포스트사회주의 시대,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63. 73쪽. [IM Gyu-seop, 2013. “Poseuteusahoejuui sidae, junggugui jeontongmunhwa daehan jeongchijeok hamui”. *Junggukagyeongu*, 63. 73]
- 조경란. 2012. “현대중국의 유학부흥과 ‘문명제국’의 재구축”. **시대와 철학**. 제23권 3호(통권 60호). [CHO Keong-ran, 2012. Revival of modern China and reconstruction of the civilized empire. *Sidaewa Cheolhak*, 23(3)]
- _____. 2013.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글항아리. [CHO Keong-ran, 2013. *hyeondae jungguk jisigin jido*, geulhangari.]
- _____. 2014. “중국 지식의 ‘윤리적’ 재구성의 가능성”. **중국근현대사연구**. 61. 165쪽. [CHO Keong-ran,

- 2014, "Possibility of "ethical" reconstruction of Chinese knowledge", *Junggukgeunhyeondaesayeongu*, 61.]
- _____. 2016. **국가, 유학, 지식인**. 책세상.[CHO Keong-ran, 2016, *Gukga, Yuhak, Jisigin*, chaeksesang.]
- _____. 2017a,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유교중국'의 재구축-1", **철학**, 제132집. [CHO Keong-ran, 2017a, "The Legitimacy of Chinese Communist Rule and the Reconstruction of Confucian China - Problems of ruling ideologylization of Confucianism and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20th century -", *Philosophy*, 132.]
- _____. 2017b, 「현대 중국의 '유학부흥' 현상—대륙신유학자 간춘송에게 듣는다」, **시대와 철학** 제28권 2호(통권79호). [CHO Keong-ran, 2017b, Modern Chinese Study abroad revival phenomenon-daerypyojeok daeryuksinyuhakja Gan Chun Songe deunneunda, *Sidaewa Cheolhak*, 28(2).]
- _____. 2018a, "2000년대 중국의 유교부흥 현상—의미와 문제점", **한국학연구** 제49집.[CHO Keong-ran, 2018a, Analysis of Confucian Revival in China in the 2000s—The Meaning and Problems, *Hangukagyeyongu*, 49.]
- _____. 2018b, "20세기 동아시아의 역사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학과 동아시아**. 도서출판b.[CHO Keong-ran, 2018b, How to view the history of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Yuhakgwa dongasia*, doseochulpanb]
- 자오팅양(趙汀陽) 지음, 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계-21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길.[ZHAO Ting-yang, No Seung-hyeon, 2010, *Cheonhachege-21segi Junggugui Segyeinsik*.]
- 전인갑 저, 2016. **현대중국의 제국몽**. 학고방. [JEON In-Gap, 2016, *Hyeondaejunggugui Jegungmong*, hakgobang.

김명희

현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교 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라는 아젠다로 연구 중이다. 전공분야는 중국현대문학이며, 중국문화연구(Chinese Cultural Studies)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2009, 혁명사드라마의 탈이데올로기적 독해—TV드라마 <잠복(潛伏)>을 중심으로"(중국인문과학, 2016)등이 있으며, 공역서로는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왕샤오밍 문화연구"(문화과학사, 2014), "계몽의 자아와해"(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등이 있다.

E-mail: wanxia923@hanmail.net

Abstract

China's Political Culture and Confucianism Revival

KIM Myoung-Hee

Research Prof.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y intellectuals in China today talk about the Confucian discourse and why Confucianism has been revived in China, which became the G2 (Group of Two), and in modern China, a De-confucian society. China, in the 21st century, is a De-confucian modern society, but why do Chinese intellectuals put forward Confucius and Confucian culture, which they disposed of 100 years ago, as their new 'civilization value' in the 21st century, a neo-capitalist era? This study is to explore why Confucianism has declined in modern China, why Confucianism is reviving in today's China in the 21st century, and what is the mechanism of Chinese society that has made this 'Confucianism revival' possible. Above all, we examined the decline process of Confucianism in modern Chinese history. We examine the following: First, why tradition was rejected during the May 4th Movement. Second, why Confucius was criticized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With a methodology of cultural studies, this paper has examined the phenomena of Confucianism revival in China, which became the G2.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national policy, Confucian discourse of intellectuals, economic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Confucius Institut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culture into institutional curriculum at universities and party schools. Through this exploration,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discovery of Confucian culture in Chin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future image of the country in the 21st century that China dreams of 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de-Confucian modern Chinese society.

[Key Words] Decline of Confucianism, Phenomena of Confucianism revival, Confucian ruling ideology, Confucius Institute, Institutional education of Confucian ideas